



트럼프

시진핑

트럼프 vs 시진핑 'G 20'에 쏠린 눈

UBS 보고서 "미·중 무역협상 깨지면 글로벌경제 침체급 둔화" 29일 결과 관심...월가, 휴전 예측 속 관세 등 돌발상황 경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금융권은 통상마찰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쏟아 냈으나 최악 시나리오를 가정한 경제성도 감추지 않았다.

25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웰스트리트의 투자은행(IB)이나 리서치업체들은 오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무역협상에서 일단 휴전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 관세 중단과 무역협상 공식 재개가 합의될 것이지만, 이미 부과되고 있는 고율 관세가 철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반적인 예상이다.

블리클리 어드바이저리 그룹의 수석투자 전략가인 피터 부크바는 "미국과 중국의 데탕트가 없다면 글로벌 리세션(국내총생산의 일정 기간 지속적 감소)이 올 것이라는 가능성이 커지지만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것은 없다"고 진단했다.

부크바는 이번 무역협상이 상황은 어렵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미래를 낙관하는 '쿵바야 순간'(kumbaya moment)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 참석했다가 둘째 날에 만나기로 했다.

스위스 금융기업은 UBS는 미중 무역협상의 판이 깨지는 사태가 불거져 추가 관세와 함께 무역전쟁이 격화한다면 글로벌 경제에 경기침체에 준하는 성장세 둔화가 닥칠 것으로 예상했다.

UBS의 경제리서치 글로벌 대표인 아렌드

캡테인은 보고서에서 "무역전쟁이 격화하면 향후 6개 분기 동안에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0.75%포인트 깎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캡테인은 그런 형세가 2011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금융위기, 1980년대 중반의 국제유가 붕괴, '테킬라 위기'로 불리는 1990년대 중남미 외환위기와 강도가 비슷한 완만한 경기침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씨티그룹도 본격적인 협상을 예고하는 수준의 휴전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회사의 글로벌 이코노미스트인 세사르 로하스는 "국가안보 의제와 관세부과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자는 '악수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점쳤다.

리서치업체 에버코어 ISI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 재개와 함께 추가 관세가 연기되거나 보류될 확률을 80%로 분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가 미중 정상회담 확정 전인 이달 7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양국이 무역 협의를 이루진 못하겠지만 추가조치를 연기할 것이라는 응답이 65%에 달했다.

BoA-ML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중 갈등을 일거에 해소하는 일괄타결 대타협(그랜드드라겐)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무역협상 의제를 둘러싼 견해차, 더욱 깊어진 양국 갈등의 골을 고려해 미국 고위관리들도 쏟아내고 있는 비판론이다.

월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G20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결과는 무역협상을 적극적으로 재개하자는 합의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청소년 흡연 폭증에 샌프란시스코 "전자담배 판매금지"

지난해 고교생 흡연 78% ↑ 美 대도시 첫 '줄' 퇴출

샌프란시스코가 미국의 대도시로서는 처음으로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시 당국은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승인이 이뤄지기까지는 모든 전자담배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날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지었다. 시 법무관실은 조례가 내년 초에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몇몇 주와 도시에서 이미 가한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구입할 수 있는 법정 연령을 21세로 상향하는 조례를 취한 바 있지만 샌프란시스코

의 경우는 전면적으로 판매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가장 강도가 높다.

지난해 가향 담배와 전자담배 액상의 판매를 금지한 데 뒤이어 규제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미국의 다른 대도시들도 가세토록 할 촉매가 될지 모른다.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연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규제 강화를 재촉하는 배경이다. 지난해 발표된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 고교생층에서 전자담배 흡연은 78%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전자담배는 지난 수년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었다. 지난 2015년 전자담배 회사들에게

2018년까지 승인 신청 절차를 밟도록 요구했던 FDA는 이를 2022년으로 연기하고 말았다.

FDA는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이 급증하자 올해 3월에는 시한을 2021년으로 앞당기는 등 횡보를 거듭하고 있다. 금연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시한은 더욱 앞당겨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샌프란시스코에 자리잡은 신형 전자담배 회사 줄(Juul)은 전자담배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을 차지한다. 이 회사는 지난 2년간 판매량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청소년층을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연합뉴스



33도 폭염... "북극곰 살려~"

25일(현지시간) 독일 서부 쾰른에서 기온이 섭씨 33도까지 치솟은 가운데 동물원의 북극곰 한 마리가 물속으로 뛰어들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 21일 日 참의원 선거 자민·공명당 vs 야당 연합

일본 의회의 상원 격인 참의원의 의원 절반을 바꾸는 통상선거가 내달 7월 21일 치러진다.

일본 정부는 26일 정기국회 폐회에 맞춰 개최한 임시각의(국무회의)에서 7월 4일 공고하고 3주 후인 7월 21일 투·개표를 진행하는 울여름 참의원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일본에선 중의원 선거를 총선, 참의원 선거를 통상선거로 구분하고 있다.

이날 참의원 선거 일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야세 신조 총리가 임기가 남은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참의원 선거에 맞춰 중·참의원 동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집권 정파인 자민·공명당과 야당 연합체 간의 2파전으로 굳어졌다.

3년마다 열리는 참의원 선거에서는 6년 임기인 의원의 절반이 교체된다.

작년 선거법 개정으로 참의원 전체 의석수가 6석 늘어난 248석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거구 74명(1인 선거구 32명 포함), 비례대표 50명 등 모두 124명을 뽑게 된다. /연합뉴스

영국, 홍콩에 최루탄 수출 중단

외무장관 '송환법' 반대 시위 폭력 진압 진상규명 요구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을 경찰이 강경 진압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자 영국이 홍콩에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최루탄 등의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

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홍콩에서 발생한 일은 중국이 향하려는 방향을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홍콩 행정당국에 경찰의 시위대 폭력진압 의혹에 대한 독립

적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최루탄 등 군용통제 장비의 홍콩 수출 허가 발급을 중단했다면서, 조사를 통해 홍콩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적 자유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면 수출을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콩에선 이달 12일 입법회 건물 주변에서 송환법 반대 시위를 벌이는 시민 수만 명을 경찰이 최루탄과 고무탄, 물대포 등을 동원해 진압하면서 8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시위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까지 최루탄을 뿌리고 육살을 하며 사진 촬영을 방해했다. 온라인에는 눈에서 피를 흘리는 시위대와, 쓰러진 시민을 집단 구타하는 경찰의 모습 등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시위는 경찰이 진압에 나서기 전까지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홍콩 행정당국은 '폭동'으로 규정하며 강경 진압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